| 현불 논단 |

삶을 배우처럼 산다면…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코로나로 '랜선 라이프' 보편화
가상·현실생활 구별되지 않아
배역 맡게 된 배우처럼 살아가

'미나리' 윤여정, 언론인터뷰서
배우로서 "임무 완수" 강조해
결과 따라 새 배역 맡는 배우
因果·緣起적 우리 삶 맞닿아

"과거 지은 각본대로 산다"는
묘공당 대행 선사 가르침 상기
주어진 배역에 최선 다해보자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물리적 이동이 제한되면서 현실 생활의 상당 부분이 랜선으로 대체되는 랜선 라이프가 신조류로 등장하였다. 랜선 회의·응원·여행·버스킹·집들이 등의 신조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 펼쳐지는 라이프(생활) 또는 인터넷을 활용해 이뤄지는 생활이나 활동을 의미하는 랜선 라이프는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인터넷 라이프가 진화한 형태이다.

마크 포스터가 "몸은 더 이상 한계가 아니다"라고 선언했듯이 학자들은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가 물리적 사회에서 가상사회로 이동할 것을 일찍이 예고하였다. 인터넷의 이용이 일상화하면서 인터넷 공간이 현실 공간으로 받아들여지기에 이르렀지만, 엄밀히 말해서 인터넷 공간은 본래 가상의 공간이다. 적어도 우리가 그것을 현실 공간으로 인식하기 이전까지는 그랬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재한다고 믿고 있는 현실 세계는 진짜 현실인가? 아니면 그마저도 가상은 아닌가? 선지식들은 인간의 현재(Presence)적 삶이 허상이니 수행을 통해 우리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설한다. 만약 우리가 실제 삶의 공간을 가상의 공간이라고 간주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마치 배우가 배역을 맡아 작품 안에서 연기하듯이 말이다.

최근 배우 윤여정이 연일 언론에 화제가 되고 있다. 미국 이민자들의 삶을 그린 영화 〈미나리〉에서 할머니 순자 역을 연기한 그가 100년 한국 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오스카상 여우조연상 후보로 올라있기 때문이다.

윤여정은 한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0년간 배우로서 밤잠을 설치게 한 질문은 어떻게 내가 촬영장에서 내 임무를 완수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우로서 '내 역할 완수하기'를 화두로 삼았다는 이야기이리라. 윤여정의 이 같은 배우로서의 삶의 태도는 우리에게 삶에 대한 새로운 성찰의 단초를 던져준다. 각본대로 배역이 주어지고 그 임무를 완수한 결과에 따라 새로운 배역을 맡게 되는 배우의 삶은 따지고 보면 우리네 인생살이와 다를 바 없다.

묘공당 대행 선사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과거에 자기가 지은 대로 각본이 되어 나오는 것이다. 지금 하고 돌아가는 것은 미래의 각본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설하면서, "탤런트들이 자기 소임을 맡아가지고 탤런트 노릇 하다가 막이 내리면 자기가 탤런트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게 소임을 맡아서 잘 합니다"라고 대중들에게 탤런트 같이 살아갈 것을 방편 삼아 설하곤 하였다.

그렇다면 탤런트처럼 사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 먼저, 그것은 주어진 사명과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일 것이다. 맡겨진 배역에 대해 한탄하거나 하소연하지 않고, 타인의 배역을 탐내지도 않으며 자신의 분수를 지키는 마음가짐이다. 다음으로, 탤런트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주위의 인연과 화합하고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려는 삶의 자세일 것이다. 무대 위에 올려진 작품의 성패가 모든 배우들의 조화로운 연기에 달려있듯이. 마지막으로, 탤런트 같은 삶이란 좌절하지 않으며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삶일 것이다. 탤런트가 식지 않는 열정으로 도전하는 것은 맡은 역할의 결과에 따라 새로운 배역이 주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이라는 무대를 랜선 라이프처럼 가상의 세계로 간주해보자. 그리고 가정에서는 물론 직장과 사회 내에서 탤런트처럼 살아보면 어떨까.

社說

공정한 해인사역 위치선정 바란다

남부내륙철도 '김천~거제' 구간에 포함된 합천해인사역의 위치를 합천군 야로면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고 있다. 야로면 인근에는 해인사와 팔만대장경, 가야산국립공원 등 연간 100만명이 방문하는 문화역사관광지가 위치해 있으며 경상남북도와 대구광역시 등 3개 시도, 9개 시군으로의 이동이 20분 이내로 접근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합천해인사역이 제대로 검증된 곳에 설치됨으로서 낙후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기존 예정지인 합천읍 서산리과 율곡면 임북리 인근에 합천군 공직자의 투기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주민들은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기존 해인사 역사 설치부지가 타당성을 담보하지 못함에도, 재검토 여부가 불투명한 이유가 지역 공직자 등의 투기 등 비리 의혹에 기인하고 있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청와대 앞 릴레이 시위에 나선 합천해인사역유치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공직자의 투기 정황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합천읍 서산리 일대 2010㎡·3999.5㎡ 부지의 논이 前 합천군청 행정국장 서모 씨의 부인 명의로 등기됐다. 주민들로 구성된 유치위원회는 "있어선 안될 일"이라고 개탄했다고 한다.

해인사역은 합천군민 만을 위한 교통수단이 아니며 전국을 연결하는 수단이자 더 많은 사람과 물류를 지역으로 연계하는 통로가 돼야 한다. 잘못된 판단으로 위치 선정에 실패할 경우 외면당할 것이다. 위치 선정에 그 어떤 비리도 있어선 안되는 이유다.

장애인 포교 첫발, 공감에 있다

불교계 장애인 포교에 대한 아쉬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좀 더 냉정하게 표현하면 장애인 포교는 커녕, 정작 사찰에서 장애인 불자들이 함께 법회에 동참하는 모습도 흔히 찾아볼 수 없는 풍경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나아지면서 과거와 같은 노골적인 편견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장애인을 대할 때 어색함이나 머뭇거림은 쉽사리 극복하기 힘든 과제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다. 불교를 사랑하는 장애인들의 모임 보리수아래가 최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알아두면 좋은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을 발간했다. 장애인도 함께 부처님을 따르는 도반이라는 생각이 있어도 막상 마주하면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불자들에게 특히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우리 만나면 이렇게 해요'를 부제로 한 이 책은 보리수아래가 편찬한 두 번째 장애인식개선자료집이다. 장애 유형별 특징과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적절한 에티켓을 소개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던지 무조건 친절하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당사자의 상황을 먼저 확인하고 도움을 원하는지를 확인하거나, 음식점에서 동석한 장애인을 어떻게 배려할 지 등을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우선 400권을 전국 주요사찰과 불교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하니 우연히 접한다면 정독해 볼만하다.

알고 이해하면 더 쉽게 마음을 열수 있다. 이 같은 교감은 따뜻한 배려로 이어지고 장애·비장애를 넘어 진정한 도반으로 함께하는 첫발이 될 것이다.



담마끼띠 스님의
다문화법당서 보낸 편지

4월의 스리랑카 설날

스리랑카 대표명절 '아룻 아우룻따'는 한국의 설날과 같은 명절로 4월 14일입니다.

아룻 아우룻따 전날인 4월 13일 스리랑카 사람들은 지난 한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보냅니다. 각 가정에서는 벽에 페인트를 다시 칠하고, 바닥을 청소하고, 부엌을 정리합니다. 이와 함께 새해 음식을 미리 준비합니다.

한해를 돌아보며 거의 쓸모가 없다고 여겨지는 낡은 옷과 물건들을 버리는데, 이는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각오의 표현입니다.

아룻 아우룻따 전날 해가 질 때쯤 사람들은 그 해의 마지막 목욕을 합니다. 이것은 신체가 정화되는 특별한 행위로 생강, 겨자, 허브와 기름 등이 사용됩니다. 그날 저녁에는 모두 달을 보는 풍습도 있습니다.

새해 첫날인 4월 14일은 새벽 폭죽과 함께 맞이합니다. 요란한 폭죽 소리와 스리랑카 전통북인 라바나 소리가 새해 시작을 알립니다.새해 첫날을 맞이하는 밤이면 각 가정에서는 여자들이 난로에 불을 지피고 집안에 등을 환하게 다시 밝힙니다. 난롯불 위에서 새로 산 냄비에 우유를 끓입니다. 이때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우유 거품이 많이 생기도록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의식 후에는 전날 준비한 명절 음식을 갖고 사찰로 향합니다. 사찰에서 준비한 새해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스리랑카에서 가장 중요한 새해 풍습은 모든 국민들이 같은 시간에 일제히 요리하고 식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해 첫날 모든 가정에서는 우유 밥인 키리 바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설음식인 전통과자 케움(Kevum)을 준비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또 사랑과 우정은 가족 내에만 머물러서는 안되기에 음식을 이웃과 교환하여 나눠 먹습니다. 이때 음식이 담겼던 접시는 빈 상태로 돌려주면 안 된다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는 지난날의 어떤 감정도 다 털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음식을 나눠 먹은 후에는 한국처럼 어른들을 찾아 절을 올립니다. 스리랑카서는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모든 어른들에게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고 새 해를 맞이하는 놀이를 합니다. 마을마다 일종의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오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단체운동과 경기를 하고 오후에는 우승자에게 상을 주고 민속공연을 함께 관람합니다.

고향을 떠나 한국에 온 스리랑카 사람들도 소박하게나마 아룻 아우룻따 전통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계속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마음으로만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마하위하라에서는 4월 18일 일요일 비대면 방식으로 아룻 아우룻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에 사는 스리랑카 아이들과 부모들이 모두 함께 비대면으로 모여 명절 풍습을 즐긴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라바나를 치고 준비한 여러 가지 명절 음식을 서로 온라인으로 공유하며 비대면으로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절을 올리는 예절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고향에서 먼 한국에서도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묻고 평화와 행복을 빕니다. 우리 모두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온 세계가 하루빨리 코로나 시련을 극복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충남 아산 마하위하라사원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10-5640-8883 경남지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구지사 : 010-2813-8008 영주지국 : 010-9373-3778 전북지사 : 010-8642-7733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공모주제 - 2021봄, 희망을 담다
· 봄을 맞은 사찰 풍경 및 자연경관 부처님의 가르침
· 나의 사찰과 수행
· 스승·도반·신도
· 사찰행사, 포교현장 등

| 공모대상
· 응모자격 : 스님 및 불교에 관심있는 누구나
※ 국내외 스님, 외국인 스님 포함

| 응모기간
· 응모기간 : 3월 30일(화) ~ 5월 30일(일)
· 심사발표 : 2021년 6월 말경
※ 입상자 BTN 홈페이지 / 개별통보

[NOTICE]
· 입상작의 출판권, 저작권은 출품자와 BTN이 공유하고 입상에서 탈락한 작품(파일)은 폐기함.
· 출품작은 국내외 타 공모전 등에 출품 및 발표되지 않은 순수 창작 영상이어야 하며,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며, 수상 후에도 위반사실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수상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급된 상금은 반환하여야 함.
· 출품 작품의 초상권과 저작권 분쟁에 관한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음.
· 1인에 대해 중복시상은 하지 않고 상금이 많은 분야만 시상함.
· 입상작은 심사 발표일로부터 5일 이내 지정된 메일 주소로 원본파일 제출.

| 접수방법
· BTN 홈페이지에서 "폰 사진 공모전" 페이지를 통해 업로드 접수

| 시 상

폰사진 공모전	
BTN 대상 (1명)	상금 2,000,000원
BTN 사장상 (1명)	상금 1,000,000원
금상 (1명)	상금 500,000원
은상 (2명)	상금 300,000원
동상 (3명)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 당선작은 자사채널(TV, VOD, 유튜브) 콘텐츠로 활용예정

| 출품 사진 구격
· 휴대폰 고화질로 촬영한 3Mb이상 10Mb 이하 JPG파일
※ 1일 3점까지 출품가능(출품비 없음)

| 심사 기준
· 내부 심사로 창의성, 스타일, 구성, 이야기, 종교성 등 종합 심사

| 문 의
· 폰사진 공모전 운영팀 / 02-3270-3417

[수상 결격사유]
· 다른 작품을 표절, 합성,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경우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 국내 외 관련법규에 의한 법적분쟁이 있는 경우

BTN붓다회 동참문의 1855-0108 | olleh 233번 tv 305번 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